

### 회원 심리치유프로그램 실시

서울시간호사회 총회 동경간호협회와 교류 활성화



서울시간호사회(회장 박인숙)는 제72회 정기총회(제44차 대의원총회)를 3월 12일 롯데호텔서울 사이어블룸에서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서울시간호사회는 올해 국내외 관련단체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특히 동경간호협회와 커뮤니티케어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회원의 권익옹호 및 복지향상을 위해 심리치유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

국내간호사의 날 기념축제의 일환으로 나이팅게일 캠프를 대상으로 나눠 추진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적정인력 등 간호관련 정책연구를 지원하고, 간호법 세미나와 간호윤리 세미나를 개최한다. 간호정책 아카데미 등 간호정책 관련 활동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간호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계속 운영하며, 유류간호사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보수교육 질 제고에 힘쓰고, 시뮬레이션기반 간호교육을 계속한다. 매거진 '서울간호'를 발간하고, 간호사전전 및 UCC공모전을 개

최한다.

올해 예산은 64억3340만원 규모로 확정했으며, 서울시간호사회 회비는 동결했다.

개회식에서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격려사를 했다. 윤종필 국회의원,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병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화숙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박흥준 서울시사회장이 축사를 했다. 이정은 서울시여성단체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에 앞서 '즐거워진 집지기' 주제로 서현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가 특강을 했다.

주혜진 기자 hjjoo@

### 보수교육 질 관리 주력

충남간호사회 총회 간호사 역량개발 프로그램 강화



충남간호사회(회장 임미립)는 제54회 정기총회(제26회 대의원총회)를 3월 13일 전안 아름다운 정원 화수목에서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충남간호사회는 올해 간호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수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주력기로 했다. '갈등해결을 위한 실무적용 의사소통' 등의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시한다.

간호사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강화해 소그룹 강의, 몸 살림 운동, 북콘서트 등 주제별·대상별로 확대 실시한다. 간호연구사업으로 충남지역 간호사 현황 조사 연구를 진행해 지역 차원의 간호인력 관리에 힘쓰고 있다. 간호법 제정 등 간호정책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간호정책 간담회 등을 개최한다.

회원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간호사 취업지원사업과 조직문화개선 활동을 추진한다. 회원 단합과 협력을 위한 아우회를 통해 화합을 도모한다. 간호대학생 장학사업을 전개한다. 모유수유 및 영유아

건강증진 교육사업 등 대지역사회사업을 펼치고, 유관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한다.

올해 예산은 6억8870만원 규모로 확정했으며, 충남간호사회 회비는 동결했다.

개회식에서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격려사를 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구본영 천안시장, 김연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이 축사를 했다. 정병기 충남도의회 의원, 여운영 충남도의회 의원, 임춘숙 충남여성성단체협의회장, 조광희 충남 보건정책과장, 최정옥 충남교육청 장학사, 박남주 천안시의회 의원, 허남영 계룡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총회에 앞서 신경림 회장이 '한국간호정책과제' 주제로 강연을 했다.

주혜진 기자 hjjoo@

### 회원복지 증진에 주력

충북간호사회 총회 간호역량강화 교육 확대



충북간호사회(회장 박미숙)는 제55회 정기총회(제26회 대의원총회)를 3월 13일 청주 S컨벤션센터에서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충북간호사회는 올해 회원복지서비스 증진에 주력기로 했다. 회원의 권익옹호와 고충상담에 힘쓰고, 취업상담 등을 제공한다. 간호정책 아카데미, 정지캠페인 등 간호정책활동을 강화한다.

간호업무수준 향상을 위한 간호역량강화 교육과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 회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확대 실시한다. 간호사회 조직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을 활성화한다.

보수교육 질 관리에 힘쓰고, 감사인력을 구축한다. 학술논문발표회 및 특강 등 학술사업을 활발히 추진한다. 도내 13개 간호대학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대전·충북·충남센터 운영을 통해 유류간호사 재취업교육, 조직문화개선 및 이직방지도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한다.

충북간호봉사단을 운영하고 대지역사회사업을 펼친다. 유관단체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간호사업 홍보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올해 예산은 5억1530만원 규모로 확정했으며, 충북간호사회 회비는 동결했다.

개회식에서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격려사를 했다. 변재일 국회의원, 한장섭 충북 행정부지사, 장삼배 충북도의회 의장, 이근영 충북교육청 기획국장이 축사를 했다. 안지서 충북사회복지위원장, 서명희 충북여성단체협의회장,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상당구 지역위원장, 최현호 자유한국당 청주시 서원구 당협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에 앞서 신경림 회장이 '한국간호정책과제' 주제로 특강을 했다.

주혜진 기자 hjjoo@

### 대정부 및 간호정책 활동 주력

부산시간호사회 총회 간호 관련 정책특위 운영



부산시간호사회(회장 황순연)는 제56회 정기총회(제26회 대의원총회)를 3월 14일 롯데호텔부산에서 열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부산시간호사회는 올해 대정부 및 간호정책 활동에 주력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추진하는 간호법 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보건외교 및 관련 단체와의 정책네트워크 강화에 힘쓰고,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활동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간호 관련 정책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회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해 교육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권역센터 운영에 힘쓰고, 우수병원 취업 박람회 개최를 지원한다.

국제간호사의 날 행사로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간호봉사대정정을 실시한다. 저소득층 아동 지원 사업과 재해·구조 후원금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간호사업 및 정책 홍보활동을 이어간

다. 차세대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간호대학생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실시한다. 건강한 모유수유 선발대회, 간호학술대회, 간호문화·사진 공모전 등을 개최한다. 부산시간호사회 소식지 '부산간호'를 연 2회 발간한다. 회원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인 'BNH 부산나이팅게일홀'을 운영한다.

올해 예산은 22억1300만원 규모로 확정했다. 부산시간호사회 회비는 동결했다.

총회 개회식에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격려사를 했다. 오거돈 부산시장(변성만 부산시 행정부시장 대독),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 유재중 국회의원이 축사를 했다.

이진숙 기자 jslee@

### 간호법 제정에 적극 참여

울산시간호사회 총회 회원배가 활동 힘쓰기로



울산시간호사회(회장 이경리)는 제22회 정기대의원총회를 3월 14일 울산 가족문화센터에서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울산시간호사회는 올해 대한간호협회가 추진하는 간호법 제정 및 간호정책 활동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회원들의 정책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간호정책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회원의 권익과 복지 향상을 위해 회원 복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감정노동자를 위한 생명존중 사업을 실시한다. 간호인력취업 교육센터 부산·울산·경남권역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유류간호사 재취업교육 등을 실시한다. 국제간호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유관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간호사 이미지 향상을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건강한 모유수유 선발대회를 개최한다.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한다. 간호대학생 장학금을 지원하고, 울산 KNA간호대학생 간담회를 개최한다. 회원 간 소통 증진을 위한 활동을 펼친다.

보수교육의 질 관리에 힘쓰고, 회원역량강화 교육의 일환으로 요양병원 관리자 세미나, 간호지도자 워크숍, 학술대회, 조직문화개선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예산은 5억3880만원 규모로 확정했으며, 울산시간호사회 회비는 동결했다.

개회식에서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격려사를 했다. 송철호 울산시장, 노옥희 울산시 교육감, 김강부 국회의원, 이상현 국회의원이 축사를 했다. 전영희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 백운찬 울산시의회 의원, 변태성 울산시의사회장, 윤애란 울산여성성단체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주혜진 기자 hjjoo@

### 간호법 제정 힘 모으기로

인천시간호사회 총회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실시



인천시간호사회(회장 장성숙)는 제24회 정기대의원총회를 3월 15일 송도 세라호텔에서 열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인천시간호사회는 올해 대한간호협회가 추진하는 간호법 제정에 힘쓰기로

뜻을 모았다. 인천시의 위탁을 받아 간호사가 어린이집을 방문해 영유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과 안전사고 예방을 돕는 방문간호사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국내 연수프로그램, 간호관리자 세미나, 간호사 Pride up 세미나, 간호윤리 세미나, 중소병원 간호사를 위한 맞춤형 교육, 간호사 Cheer-Up, 구별로 찾아가는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범청소년과 모범간호사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회원들과의 대화를 활성화하고, 중소병원 및 요양병원 간호부서장과의 간담회 등을 연다. 모범간호사를 선정해 표창한다. 언론매체,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에도 힘쓴다. 국제간호사

의 날 기념행사로 '인천간호사의 날'을 개최할 예정이다.

올해 예산은 14억5620만원 규모로 확정했으며, 인천시간호사회 회비는 동결했다.

개회식에서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격려사를 했다. 박남준 인천시장, 허중식 인천시 부시장,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이 축사를 했다. 송영길 국회의원, 홍일표 국회의원, 윤관석 국회의원, 맹성규 국회의원, 박찬대 국회의원, 신동근 국회의원, 윤종필 국회의원, 윤상현 국회의원(유미숙 여성부장 대독), 변미선 인천 남동구의회 의원 등이 축사를 했다.

총회에서 앞서 신경림 회장이 '한국간호정책과제' 주제로 특강을 했다.

최유주 기자 yjchoi@

## 간호, 천 번의 손길 천 번의 마음입니다. 저의 이름은 간호사입니다.

**“저의 이름은 간호사입니다”**

의료공간에선 제 부모, 제 자식이 따로 없습니다. 모든 환자를 내 가족 이상으로 정성을 다해 돌보는 것이 저의 의무입니다.

저에게 환자를 존중하고 환자께 존중받는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간호, 천 번의 손길 천 번의 마음입니다. 저의 이름은 간호사입니다.

보건복지부 대한민국영희 간호대학교육위원회

**“저의 이름은 간호사입니다”**

혼자를 다루는 응급현장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저는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누구보다 먼저 달려옵니다. 간호, 천 번의 손길 천 번의 마음입니다. 저의 이름은 간호사입니다.

보건복지부 대한민국영희 간호대학교육위원회

**“저의 이름은 간호사입니다”**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저의 소명입니다.

저는 전문적인 간호로 환자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간호, 천 번의 손길 천 번의 마음입니다. 저의 이름은 간호사입니다.

보건복지부 대한민국영희 간호대학교육위원회

**“저의 이름은 간호사입니다”**

환자가 회복되는 걸 보는 것 만큼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저에게 믿음은 직업 그 이상으로 제 삶의 보람입니다. 간호, 천 번의 손길 천 번의 마음입니다. 저의 이름은 간호사입니다.

보건복지부 대한민국영희 간호대학교육위원회